

올해 나는 소설 쓴다

테이

그럼에도 불구하고, 꾸준히 쓰는 사람

올해는 제가 소설을 쓰겠다고 다짐한 해이고요, 근데 에세이만 써 보았지. 소설은 써본 적이 없어 막상 쓰려고 하니 어렵고 막막하더라고요, 소설을 쓰기 위해 소설 수업을 신청했어요. 그리고 '소설 쓰는 것은 어려워.'라고 생각하니 소설을 쓸 기미가 안 보여 '소설 쓰는 것은 쉬워!'로 생각을 바꿔버렸습니다.

6월 10일은 교보문고 스토리대상 공모전 마지막 날이었는데요. 교보문고 스토리대상에서 원하는 단편소설의 분량은 A4용지 15페이지더군요. 평소 저를 *테이롤링이라 부르며 응원해 주는 친구가 있는데요, 그 친구가 그 공모전에 대해 전에 한 번 알려준 적이 있었습니다. 소설 쓰는 것은 쉽다고 생각을 바꾼 이후 한 날 6페이지 정도까지 써 두었고요. 10일 자정이 임박하여 15페이지 다 써서 제출했습니다. 그저 A4용지 15페이지에 글자를 채운다는 느낌으로 썼습니다. 그것으로 만족합니다.

**테이 + 조앤롤링의 합성어로 친구가 테이가 조앤롤링과 같은 베스트셀러작가 되길 바라며 붙여준 별명이다.*

소설 수업을 듣는데 다른 분들께서 많은 소설을 읽으셨더라고요, 저는 그에 비해 한없이 적은 양의 소설을 읽어서 부끄럽기도 하였습니다. 소설 쓰는 것이 막막하니까 도서관에 갔습니다. [올해 당신은 소설 쓴다]라는 제목의 책이 있더군요. 바로 집어 들었습니다. 그 책을 읽고 올해 단편 소설 2편을 쓰겠다는 목표를 세웠고, 소설 수업까지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. 타이밍도 잘 맞았는데요. 원래 지난 2월, 회사에 입사하여 10시 반부터 7시 반까지 출퇴근 하였었거든요? 현데 4월 말에 퇴근하기 5분 전, 이사님이 저를 불러 3개월 계약만으로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여서 글을 쓸 시간도 많아졌기에 말입니다.

쓰는 것이 참 좋습니다. 소설 공모전 마감일인 10일 화요일 아침, 주먹밥 하나 먹고 지난주 에세이(사라진 식욕을 되찾기 위해 시도해보는 것들)를 최종 수정해 4~5시쯤 제출한 뒤 곧바로 소설 쓰고, 저녁 7시 반엔 소설 수업 듣고, 밤 10시부터 다시 소설 썼는데요. 극심한 배고픔을 참아가며 15페이지를 채워 자정을 좀 넘긴 시각 지원을 완료하였지요. 사라졌던 식욕은 하루를 쫓쫓 굶으며 에세이와 소설을 썼더니 저절로 돌아왔네요. 호호

밥은 굶을지언정 글은 씁니다.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. 하지만 글을 써서 밥값을 하고 싶습니다. 그 방법을 아직 몰라 찾아가는 중입니다. 작년에는 회사 여덟 군데에 입사하고 퇴사하고를 반복했어요. 자존감은 저 해져 심해로 떨어졌고, 통장잔고는 빵. 침대와 한 몸이 되어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 지냈었습니다. 친구가 "요즘 죽고 싶다는 생각이 자주 드네 우울증인 것 같아 ㅋㅋ 심하면 병원 가보려고"

라고 문자를 보냈었는데 저도 그 친구와 같은 마음이었어요. 친구의 말을 기억해 두었다가 브런치북 연재를 시작할 때 첫 번째 글의 제목으로 어그로를 끌었습니다.

우울할 때 산책해라 음악을 들어라 뭐해라 등등 많이 있지 않습니까? 저는 우울할 때 글을 썼습니다. 나만 보는 일기를 쓰는 것과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될 수 있는 브런치에 쓰는 글은 엄연히 다르지요. 글을 써서 돈을 벌겠다고 퇴사를 해놓고 글은 쓰지도 않고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 아무것도 안 하는 나를 자각하니 크게 잘못됐단 생각이 들었고, 다시 써야겠다고 다짐하게 됐어요. 매일 쓰겠다고 결심하고 브런치에 매일 썼습니다.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래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. 쓰다 보니 누워있어도 핸드폰으로 전자책을 읽게 되더군요. 나가기 싫어도 글을 쓸 이야깃거리가 있어야 하기에 나가려 노력하더군요. 글을 써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있으니 한 끼를 먹어도 맛있게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브런치북 책출간 프로젝트에 브런치북을 출간할 겸 우울한 나를

다잡을 겸 매일 브런치에 글을 썼고 10꼭지 다 채워 출판 프로젝트 지원도 완료하고 그 덕에 부정적인 생각에서도 조금은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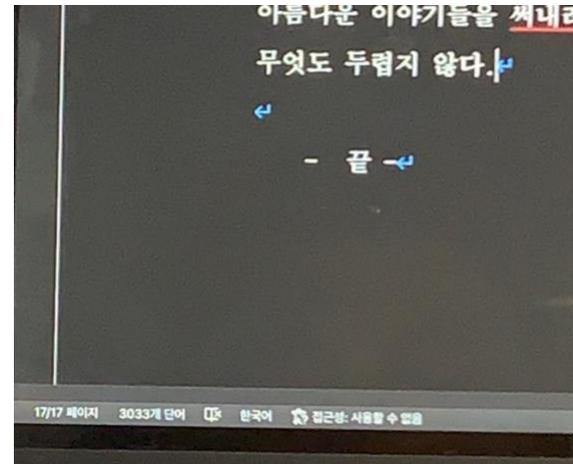
21년 초에 [오늘부터 딱 1년, 이기적으로 살기로 했다]라는 책을 읽고, 그해에 책을 출간하겠다는 목표를 세워 7월 27일에 책을 출간할 수 있었습니다. 목표를 세우고 글로 적어두면 실천하게 됩니다.

올해 나는 단편소설 2편 쓴다!!!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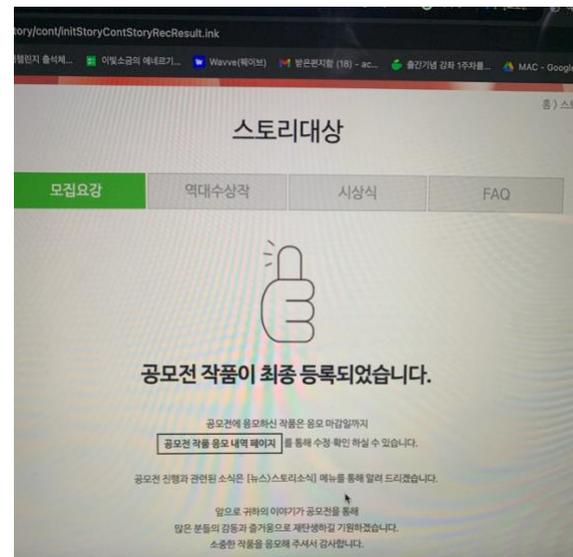
이번 에세이 제목은 월터 모슬리 저, 이은정 역, 더고북스 출판, [올해 당신은 소설 쓴다] 라는 책 제목을 오마주하였습니다.

21년 7월 21일에 출간한 제 책의 제목은 [엄마는 양념계장 레시피도 안 알려주고 떠났다] 입니다.

4주간 여러분의 따스하고 진심 어린 코멘트 덕에 인정욕구 송송 송송 도파민 풍풍풍풍 했어요, 아주아주 매우 매우 감사해요. 8x8 우리 함께 꾸준히 쓰시다!!!!



공모전에 소설 올렸어요.jpg1



공모전에 소설 올렸어요.jpg2